東亞日報
夕刊 五月十二日(土)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金炳寅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歐洲의對米戰債 그半減을考慮中

二百十億弗을 百十億弗로減額

米國不遠重大發表?

【華盛頓十一日發聯合】 오는 六月十五日에 期限到來할 對米戰債의 一部分만 支拂할 나라는 今期議會通過한 쫀슨法(債務不履行國에 對한 金融을 不許한다는法律)에 依한 債務不履行國에 編入될것에 關하야 米國政府는 近者에 그 解釋을 天下에 聲明하리라고 뉴욕·타임스의 워싱톤特電은 報道하게되엿다 米國은 過去二回에 限하야 英國其他에 戰債一部分支拂을 承認하여왓으나 佛國의 休拂도 二次 三次인 今日까지 이대로 갈수없으며 米國政府로서는 何等의 具體的態度를 表示치아니할수업게된 셈이다 特히 英國政府와같은 그態度를 分明히 하여야할 必要가 잇다 今年에 들어서는 一部分支拂만으로 問題를 解決하려고하는 傾向이 米國의 重要問題로 되어잇다 ……

戰債의 根本解決策

利率減下와 支拂期限短縮

米國大統領의 意向

【워싱톤十一日發聯合】 今年上半期의 戰債支拂時期인 六月이 가까워옴을 따라 特히 今年은 쫀슨法案의 成立을 보게되어 따라 戰債에 對한 政府側에서 傳하는바에 依하면 大統領은 今年도 一部支拂만을 하는나라에 對하여서는 쫀슨法案에 依한 不支拂國으로 宣言할 것이라 하는데 他方 戰債의 根本問題解決案에 對하여서는 大統領은 于先 議會에 對하야 戰債에 對한 利率의 改訂交涉에 關한 權限의 附與를 要求하고 그法案의 制定을 俟하야 關係各國과 交涉하고 大體로 分割의 利子는 元利合計金額中의 利子 三、五%를 八分의 一%로 引下하는 同時에 現在의 戰債支拂期間 六十二年을 卅年으로 短縮할 條件으로써 折衝을 開始하지않을가 觀測되며 다시 右利子의 引下率에 依하야 債務國은 總計百億弗의 債務의 引下를 受하게 될 것이다

法相告發事件 去益進展

長島氏도留置

【東京電話】 小山法相告發事件에 對하야 東京地方裁判所 檢事局에서는 事件의 內容을 繼續하고잇는데 十一日에 至하야 依然 進展하야 從來 幾多의 利權問題로 風聞잇든 代議士 長島隆二氏의 實弟 元帝國生命銀行重役 長島弘氏를 同日午後六時 西大久保의 別宅에서 引致 同夜는 그대로 警視廳에 留置하엿다 이리하야 事件은 益益 擴大되리라고 觀測된다

通車問題는

北平鐵路局에

【聯合大津十一日發】 華北諸懸案 解決에 關聯하야 南京政府는 日本政府의 態度가 意外로 强硬함에 鑑하야 于先 通車問題를 解決하기로 決定하얏다하며 十一日 北平鐵路局에 對하야 華山鐵路와의 聯絡에 速히 通車實現을 準備를 하도록 命하엿다

日本의强硬論 聯盟側注視

라博士再赴任說을否定

【제네바十一日發】 外國方面으로부터의 情報는 發히 라이히만博士의 中國再赴任說을 否定하고잇으나 이에 關하야 聯盟側에서는 日本의 强硬한 態度에 鑑하야 …… 日本의 新對中政策 ……

平和의 女神이 사르·단치히·메멜·땅地利等의 목개비에 놀래고 잇다(모스크바·프라우다紙) 左는 砲彈의 暴風에 싸히엇는제네바(로마·하게·파시엘레로 上 同紙)

日是 旅行하는 巴里

日 무시무시한 歐洲의現狀 日

文部內抗爭을 各方面重視

齋藤文相의處斷에注目

【東京電話】 文部省內에서 勞務社會教育局長과 武部普通學務局長과의 對立抗爭은 最近 日本教育新聞을 揮發하고잇는 西崎博吉이란者의 檢事廳取調가 有罪의 手中에 드러가게되어 俄然 表面化하야 目下 文部當局 中心으로 局長, 局員에 至하기까지 深刻한 對立關係를 生하야 收拾할수업는 關態를 暴露하고잇다 그리고 關係者와 齋藤文相이 이에 對하야 如何한 處斷을 取할까 各方面에서 非常한 注意로써 보고잇는데 이對立抗爭은 何等公務上의 問題가아니라 私情에關한 感情上의 問題이므로 當局 이것을 刷新 ……

라이히만報告書 議論沸騰形勢

小國側은對中援助續行을主張

聯盟오랫만에活況?

【제네바發電】 聯盟事務局에서 九日 公表된 라이히만 保健部長의 對中技術的協力에 關한 中國에서의 建設事業 棉花改良 蠶業技術等에 關한것에 그치고 石報告書中 特히 聯盟人의 注意를 끌고잇는것은

一、中國經濟發展의 全國的機構基礎로될 國民政府機關 樹立되었다고 …… 되어있다

一、技術的協力의 面에 當하고잇는 라이히만博士로서는 現在七省에 라이히만博士 行하고잇는 協力의 範圍를 全中國에 擴張하야 將來의 統合制一을 期하려는 希望이다

라이히만報告書가 理事會開會中 中國委員會에 上程되며 相當한 議論이 沸騰하리라고 되어 聯盟側에서는 日本이 中國不可侵의 宣言을 發表하야 今後 中國에 技術的 援助를 繼續하면 日本對聯盟 或은 日本對大國의 衝突을 惹起할지도 未知이므로 聯盟에 對中 援助를 抛棄케 할것이다

小國側에서는 昨年의 總會에서는 日中紛爭報告書는 日本만은 反對하엿으나 中國에 對한 國際的援助의 必要를 가장 强調하고잇든것이므로 聯盟은 對中援助를 續行하여야 되며 萬若 이것을 抛棄하면 聯盟에 對한 中國의 信任을 喪失하게될것이다

【南京發電】 中國에 對한 技術協力의 援助委員會는 全國經濟委員會 中國各地방의 視察한 聯盟保健部長 라이히만博士는 前後 約一個年에 亘한 主張하고잇다 그리고 日本側에서는

라이히만博士는 最近제네바에 歸還하야 報告書를 聯盟理事會에 提出하엿는데 九日 全國經濟委員會 秘書處는 右報告書의 全文을 發表하엿다 報告書는 序言及十一章으로서 全文五十一頁에 亘한 것으로서 技術的援助委員會의 受託事項에 基하야 專히 技術的報告의 性質을 가진것이다

序言 第一章 全國經濟委員會의 成立까지의 期間中 任命當時로부터 一九三四年四月一日까지의 期間中 理事會·技術代表의 中國에서의 使命及 聯合同代表의 理事會에의 報告書

第一章 農業
第三章 棉花
第四章 蠶業
第五章 水治
第六章 道路
第七章 衛生
第八章 教育
第九章 (第二章으로부터第八章까지의 要約)
第十章 國民政府의 建設事業에 關한 行政院 汪兆銘氏의 說述
第十一章 聯盟을 通하여서의 技術 協力 提案

石報告書는 中國에서의 經濟事業中 가장 主要한 實例로서 全國經濟委員會의 豫算內容을 揭하고잇는데 一九三四年度의 委員會의 豫算은 如左하다

道路建設費 六百八十萬元▲衛生施設 五十萬元▲棉花 百萬元▲蠶業 七十五萬元▲江西 共產區救濟費 百九十萬元▲西北開發費 二百五十萬元▲燃料探査費 一十萬元▲土地測量 七萬元▲經濟調査 二十萬元▲行政、技術的專門家 招聘費 七十五萬元▲準備金 四萬 四十萬元▲奈試驗技術補助金 六 三千六百元▲一千五百萬元

石報告書는 技術的援助委員會의 使命이 專혀 特定問題에 關한 諮問의 範圍에 限定될것을 明確히하고 結論에잇어 如左히 記言하엿다

結論

國際聯盟의 技術委員會에 依하야 任命된 諸國專門委員은 明確히 限定된 諸問題乃至 問題에 關한 相談하야 全國經濟委員會에 가장 必要한 時에 應하기 爲한 것이다 그러나 그使命은 遂行하기 爲하야 諮問機關으로서의 使命은

다만 技術的見地에서 中國의 實情을 調査研究하고 必要로하는 助言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調査와 研究의 途行은 中國의 技術的, 行政的 當局及 諸機關과 個人的專門家의 協力에 依하야 가장 安當하다 더욱이 諮問事項은 原則으로 全國經濟委員會의 限定行動의 主로하고 且諮問에 參與하는者는 國際的 權威잇는 著名한 專門家에 限定치않으면 안된다 技術委員會와 中國의 全國經濟委員會는 一九三一年에 成立되고 一九三三年까지 繼續된 決定에 基하야 今後도 依然 協力을 繼續치않으면 안된다 且現在의 經濟的 政治的 秩序의 變化에 適應하기 爲하야 中國에 對한 技術的援助委員會에 關한 規約의 許可範圍內에서 適宜訂正을 加하게 될것이다 兩委員會間의 協力은 中國의 全國的 技術的 事業과 他國에서 同樣의 事業을 遂行하는 諸機關과의 連絡을 圖함을 目的으로하고 이에 依하야 中國의 全國的經濟的 開發援助의 基礎와 機能의 强化에 資하려는 것이다

問題의報告書

軍縮會議蘇生에 헨議長猛活動

廿九日委員會도結局은無爲?

그前途는依然히暗澹

【聯合倫敦十一日發】 瀕死의 一般國際軍縮會議를 救濟하려고 大活動을 繼續하고잇는 헨더슨議長은 十一日 제네바로 가는도중에 바르로 外相을 訪問하고 前後二時間에 亘하야 會談하엿는데 右會見에 對하야 如左한 聲明書가 發表되엿다

聲明書

헨더슨議長은 바르로外相과 會見한 結果 來五月二十九日 軍縮一般委員會를 開催할 必要가 잇다함에 意見이 一致하엿다 五月二十八日 幹部會를 開하야 一般委員會開催의 準備를 整齊하기로된것이다

……會議終了後 헨더슨議長은 卽時 倫敦에 向하야 歸還의 途에 就하엿는데 一般軍縮 條約의 達成은 全히 絶望은 아니나 國際軍縮會議의 前途에 對하여서는 一切贅口不言하엿다 來週의 理事會開會에 當하야 英軍縮代表이든氏와 바르로 外相이 會見하기로 되어잇으므로 그 結果 國際軍縮會議의 前途에 어떠한 光明이 齎來하지 않을까 하는 希望을 가지고잇다

英國의 態度는 佛國의 安全保障 要求에 應할 수가 잇다 이는 代表가 佛政府와 協議하야 何等의 打開策을 得한 것으로 絶望도 아니나 그러나 軍縮交涉의 前途는 依然 暗澹하다

【電通巴里十一日發】 佛外相바르로氏와 헨더슨 軍縮會議議長은 今日 再會見하야 軍縮問題에 對하야 協議를 續行하엿다 헨더슨議長은 昨日 바르로外相이 英國의 保障要求에 對하야 對佛安定約을 提議할때 如何한 英國政府는 歐洲大陸에 서 新責任을 負擔하는 契約은 하지 안는다 그러나 萬若 英國이 聯盟規約及 로카르노條約下에서의 英國의 責任을 明確히 定義한다면 佛國의 安定保障要求는 어느程度까지 充足되리라고 말하엿다

파쇼의伊太利 軍部人事大刷新

陸軍法案을議會에上程

【聯合로마十一日發】 六月限昇進制를 廢止하야 職能組合制를 確立하고 發展中인 國家의 軍隊를 革新하려는 伊太利軍部의 人事行政이 改善하고 新舊에 適應치 않는 將校는 退役의 命을 하고 右法案은 當局의 手에 依하야 起草되어 十一日에 至하야 議會에 上程되엇다 右法案의 要旨는 如左하다

一、世界大戰 休止以來 進級치 못한 將官에는 今後 二年마다 充分한 經濟的 保障을 與하고 自由로 退役케함

一、今後 士官의 進級은 任官順에 依치않고 專혀 人材拔擢에 依하야 人材를 登用할 制度에 關하야 軍法案의 作成을 命하고 右法案에는 將校士官에 對하야 退役者에 實施함

西園寺公、今朝 官邸에首相訪問

藏相、內相도 參席

【東京電話】 西園寺公은 豫定과 如히 十二日午前十時 十五分 原田熊雄男을 대리고 永田町의 首相官邸를 訪問하야 齋藤首相과 公邸에 入하엿다 이보다 먼저 公이 말하기를 齋藤首相이 官邸에 들어서 首相, 山本內相과도 會見하기로 되어잇으므로 午前九時五十分에는 山本內相이 前後하야 首相官邸를 訪問하고 미리 西園寺公과 會見하야 報告할 要旨의 政情一般에 對하야 三長老의 協議하고 首相官邸에서 西園寺公을 기다리고잇으며 田男의 案內로 사리와서 서로 久闊을 說하는 人事를 하자 原田男은 別室로 退하고 다음 時間 齋藤首相이 四月一日 興津坐漁莊을 訪問하야 第六十五議會의 經過及重要事項에 對하야 協力一致하야 各閣僚 協力一致하야 重大時局을 處理하고 國政處理에 最大努力을 傾注하야 時局打開에 邁進하고잇는 것을 報告한 後 時局은 重大하므로 此際 各閣僚는 自重하야 國家를 爲하야 充分히 盡力하기를 바란다 하야 相互 政局의 時情을 기다린 情에 잇기 때문에 結局은 原則的 相互 諒解되기는 困難하다 그러나 非常히 갑어 一段 憂慮하고잇다 이로써 西園寺公은 同三十五分 官邸를 辭去하엿다

駐晒大使館 襲擊事件調査

【電通신가폴十一日發】 新嘉坡 日本大使館은 최근 直接 日本人在留민의 襲擊事件에 關하야 十一日 本國政府에서 當地日本領事를 通하야 이를 調査하고 또 日本領事에서 …… 調査를 命하고 事件을 調査하기로 되엇다

【電通신가폴十一日發】 신가폴에 在한 日本領事館에서는 三越事件에 對하야 아직 何等의 情報에도 接치않고 신·싸로·發信의 認定하고잇는 出來事에 對하야도 全然 不知라고 함하고잇다 大使館側의 結果 至急調査에 着手하기로 되엿다

'軍縮失敗되면 空軍大擴張'

볼드윈前首相이演說

【聯合倫敦十二日發】 保守黨 首領으로서 現在 樞密院議長의 要職에 잇는 前首相 볼드윈氏는 十一日 런던에서 行한 保守黨 婦人部 大會에서 軍縮問題에 對하야 如左한 演說을 하엿다

軍縮會議가 失敗한 時에는 英國政府는 旣定方針에 從하야 空軍의 大擴張을 斷行하여야된다 軍縮會議는 至今 最後의 段階에 入하엿다 余는 此際 特히 保守黨의 諸氏가 政府의 平和工作을 支持하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今日의 軍縮交涉의 失敗에 臨한 境遇에는 英政府는 이미 三月八日 上院에서 聲明한 方針에 從하야 善處할 方針이다 …… 英國의 空軍을 擴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엿다

誠意잇는援助는 接受할意向

國民政府當局의發表

【電通上海十一日發】 라이히만博士의 報告書에 日本이 反對하고잇다는 報道는 中國側에 相當한 衝動을 與하고잇는데 이에 關하야 國民政府當局은 十一日 非公式으로 如左한 談話를 發表하엿다

中國政府는 誠意잇는 援助이면 上手段의 技術合作이라 列國의 物質的援助이라도 不問하고 主權을 侵害치 않는 範圍內에서 이를 接受하려는것이다 이것은 日本政府 又는 日本人이 中國의 建設復興에 誠意잇는 援助를 하려는 境遇도 同樣이다 中國으로서는 그것을 拒否할 理由는 갑을것이다 그러나 今日 日本이 各國의 對中援助는 中國을 爲하야 日本의 援助만이 善意라고 斷定하는것은 너무나 獨斷에 지나치다 中國은 獨立國으로서 友邦의 誠意잇는 援助는 스사로 이를 歡迎하야 接受할것이며 어떠한 國家의 脅威에 依하야 그接受가 左右되는것은 아니다

聯盟理事會는 十四日開會

日中問題討議會도開催

【電通제네바十一日發】 聯盟理事會는 十四日 開會되는데 委員會 同時에 日中紛爭 勸告委員會도 開催되기로 되엇다 그리고 米國은 經由하야 歸歐의 途中에 잇는 聯盟保健部長 라이히만氏는 右委員會에 出席하기 爲하야 十一日 제네바에 來着, 中國代表 顧維鈞氏도 十二日午前 當地着의 豫定이며 이로되었다 라이히만氏는 그 報告書에 對한 日本의 反對를 極히 重要視하고잇는데 聯盟의 援助籌備方針에는 變更이 없으리라고 解釋되엇다

園公會見後 齋藤首相談

【東京電話】 西園寺老公과 會見後 齋藤首相은 如左히 말하엿다

山本、高橋兩閣僚와 함께 老公에게 會見한것은 무슨 意味잇는것은 아니다 老公에 對하여서는 別로 새삼스럽게 三大政策에 對하여서 變更 잇으리라고 解釋되엿다

園公會見後 山本內相談

【東京電話】 西園寺公과 會見後 山本內相은 말하되 今日 我等三人이 西園寺公에게 會見한것은 別意味가 잇는것이 아니다 다못 老公이 首相을 訪問하기로 한것이 좋다하야 만나자는 意思이다 그러면 三人이 만나 보자는 것이 좋겟다하야 만난것이다 다른 老人들의 이 가 안이 어떠니하는 ……

消息

▲宇垣總督은 田中通譯官 隨伴 十四日京城驛發 安東縣에 향하야 十分 京城驛發 安東縣에 向할터인데 日程은 如左

十四日 京城驛發 淸州를 經하야 永安堡
十五日 永安堡發 安東縣
十六日 安東縣發 鎭南浦에 三泊 宿泊
十七日 三陟發 平海
十八日 平海發 豊浦
十九日 海雲臺發 午后五時京城驛着

▲津田鐘紡社長 十一日午後七時 朝鮮호텔에 招待 晩餐會開催

橫說竪說

▼政策協定으로 中心으로 하는 政民兩黨의 合作 妥協은 政友會의 使命인 政策主義의 擁護를 主張하자는 것이니 ▼政黨의 使命은 國民에 提携 하자는 主旨로 十一日 會合이 가지고 第一次 會合이 있었다 ▼會合의 大綱目은 適當히 가로되 國策의 本位 入閣하야 다른 主張은 一據하야 나아가 多年의 政治家로서의 面目으로서 小黨을 버리고 大同에 서서 國民의 政黨이 되랴는 主旨라 하야 이 그 하나. ▼國民은 立憲政治下에서 政黨의 存在 價値를 의심한다 政黨은 무엇 할것도 업어 立憲政治의 擁護者라고 ▼그러고 吾等은 이 國民의 輿論을 獲得하야 民意를 尊重하야 政治를 淨化하야 憲政常道로 邁進하겟다 하야 그 두째. ▼現時의 情勢는 外로 國防問題의 危機가 잇고 內에는 農村의 疲弊와 經濟生活의 脅威가 잇음으로 于先 當面한 米穀對策과 農村救濟에 努力할 것이라 하야 이 會合의 具體的 聲明이 이 合作 ▼兩黨 多年의 兩黨의 合作이라 하야 한 名義 單位의 政黨이 아니라 ▼文字로 表現하야 國民의 利益을 爲한다고 하니 이 名文에 依하야 表裏 一致할 快哉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民間의 政治家로서는 不遠한 것 ○ 將校도 不遜한 作戰 移動이 現狀. 農政令은 누어서 號令 ○ 鬱陵 理事會는 오는 十五日 오래간 만에 世界的 貴賓이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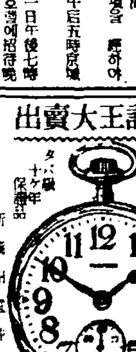
號外發行 十二日 午前十時 號外를 發行하엿다 / 當川事件으로 今

新聞募集開始
一、簿記學生募集(講義錄)
二、
第一高等簿記學會
京城府水標町二ノ一〇(市場前) 電話本局二〇三〇番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察學會
京城府水標町二ノ一 振替京城一八〇番

徳
金
石
金
高價買入
京城府明治町
株式會社 京城德力
平壤府旭町二三
平壤出張所

寫眞機械 及 材料
山崎寫眞機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二〇一〇番

時計大王大賣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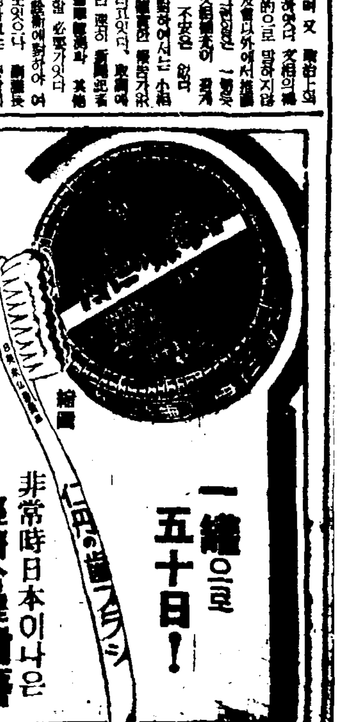
滿天下紳士諸氏
時計を御持ちの方は此の機會に御買求め下さい
タバン級クロームケース側 六形十五石入 特價 金六圓參拾錢
瑞西製クローム側 懐中十六形十石入 特價 金五圓參拾錢
東洋和洋行 通信販賣部
京城府 電話 一九三一番

독일물감 染料 藥品
合資會社 獨逸洋行直賣部
京城府

선벽거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府 東大門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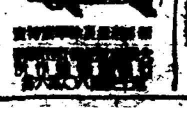
當選謝禮
鎭南浦府會議員
金炳奎
金秉根
昭和九年五月十日

當選謝禮
鎭南浦府會議員
前田鐵
佐藤長五郎
岡谷修二
昭和九年五月十日



一罐으로 五十日!
非常時日本이 나은 經濟合理齒磨

博士創製의 毛生藥



桃花劇場

勇少年義勇團
大危險突破
冒險突破

ClibPDF - www.fastio.com

富川에短刀犯突現 巡査部長을殺害

蘇萊駐在所에侵入하야犯行

道警察部總出搜索中

十一일 오후十一시경에 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 소래주재소(蘇萊駐在所) 구내 순사부장 사택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하여 소래경찰관주재소 순사부장 유뢰양길(柳瀨良吉)(四三)을 단도로 복부(腹部)를 찔러 즉사케 한사건이 생기엇는데 이를 十二일 오전六시에야 발견하고 범인 수사에 착수하엿다.

때마침 당진(唐津)에 권총범이 나타난때이라 동범인의 범행이나 아닌가 하여자못주목되며 순사부장이 피살된 현장은 인천(仁川)에서 약四十리, 소사역(素砂驛)에서 약十五리되는 곳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경비 전화도 없는곳인데 활 이 민활치못한 곳으로 범인수사에 곤난중이며 이소식을 접한 경기도에서는 죽내(竹內) 경찰부장, 경찰부 형사과(京畿道警察部刑事課)에서는 야촌(野村)형사과장 이기(一見) 경부외파원총출동으로현장에 급행하엿고 인천(仁川)경찰서에서도 현장에 급행하여 범인체포에 노력하는중이나 아직 범인의 행방은 알수없다 한다.【以上號外再錄】

駐在所門앞에 血滴과格鬪形跡

盜難届하러가든 津田校長이 發見

現場에떠러진피묻은 갈

【蘇萊에서特派員金正實電話】 범행파같이 순사부장이 피살된데 대하야 여러가지를 종합하야 보면 첫번소래보통학교 북편입구를 열고 들어가 복도로 동으로 걸어가역시 북편에잇는 유리창을 열고 들어가서 무엇을 찾다가 적당한것을 얻어보지못하고서 남쪽문으로 나와 운동장건너하고 남편에 잇는 진전(津田)교장 집에 들어가서 책상머리에잇는 금시계를 훔치고 역시 책상우에 놓아둔 아이들의 술,짐심주먹밥을 한덩어리를 먹고서그것을싸든대팻밥을 운동장에 내버리고서 다시 주재소에 들어가 겨루한끝에 유뢰(柳瀨)부장을 단도로 찔르고 도주하고 말엇다고 본다 한다.

十二일 아침 소래보통학교 五六학년생도를 경성으로 원족을 보내려고 작정하엿든 관계로 새벽 일찍 일어난 진전교장은 어제되는 이에게 돈을 작전나 볼고저 며칠전에 소사(素砂)보통학교에도 적이침입하야 도적맞어잇든 일어하야 원족되므로 즉시 침실에서서재에 가본즉 시계가없어졋으므로 범쾌서 학교에가 보은즉 역시 침입한 흔적이 잇어 그길로 주재소를 찾엇으나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열지 않으므로 앞에 하숙하고 잇는 이(李)순사를 데리고서 문을열고 들어간 결과 주재소 사무실 뒤에잇는 사택마당에 사쓰바람으로 쭈구리고 죽어잇엇다. 웃동은 벗고 아래는 속바지 하나만을 입고서 쭈구리고 앉어 잇는것을 보아서 칼을들이 겨루하다가 배를 찔리서 현장에서 앉어 죽고 만것으로 부근에는 흘린피가 한강을 이루어엉기고 범인이 버리고간 세치나되는 단도가 버리지 잇엇다. 그러고 들어 가는데에는 겨루한 흔적으로 피가 짐직히 흘러잇어보기에끔직스러웟다.

妻子는旅行中 翌朝에야發見

범행당시한 순사부장사택에는 때마침 순사부장의 처와 아들들은 일본내지로가고 혼자잡는 사이에 침입하엿든 관계로 경부들에 피살된것이므로 그범행의 경로와 이를변해줄 사람이 없엇다. 그리하여 범행의 의외 처에야 발견된것이다.

檢事出動、解剖中

十二일 十시경에는 춘전(春田)경성지방법원 검사가 서기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동하엿으며 제대병원(帝大病院)에서는 좌등박사(佐藤博士)의 집도로 해부에 착수하엿다.

버리고간 칼에 남은 犯人의指紋調査

市內와京仁各署總出動

충남당진(唐津)에서 권총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날 동범인의 종적이 묘연하야 경기경찰부는 긴장중에 잇든 차 十二일 오전六시 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 소래주재소 순사부장이 피살되엇다는 급보를 접하자 경찰부를 위시하야 시내에서는 용산(龍山) 서대문(西大門)경찰서에서는 ... 파송하는 일방 자기관내를 엄밀 경계중에잇다.

지 확실한 정을 아지못하고잇으나로 수사에 큰 지장이 생기으로 경기경찰에서는 엇줨수없이 오직 남어잇는 힌당이 묻은 단도와 떠다버리고간「빵」조각을 十二일오후엿시반경 현장에출동하엿든 궁지(宮地)형사부장이 가지고 올라와서 지문대장과 대조하는 가운데잇다. 그러고 혹은 충남권총범인이라 할지라도 중간에서 경계를 풍당하다가 최후의 전기행동 피키워하야 권총을 버리고 단도를 하지나아니하엿는가하는 추측으로 오다가 전기순사부장에게 쉽 도엿고 또 한편으로는 동순사부장과 무슨원한이 잇는사람의 행동이나 아닌가 추측하는사수란도잇어 정확한것은 아직 알수없는 형편이라한다.

巡査被殺事件畫報 【上】襲擊當한蘇萊駐在所【中】蘇萊普校事務室侵入足跡(○印)【下右】쭈구려앉어죽어잇는被害場所(×印)【下左】津田校長의집주먹밥을먹고버린곳中央人物은刺殺당한村瀨巡査部長

國境道路計劃 一億萬圓을計上

實地踏査以後에確定

조선만주국경의 도로연락에는 十一일에도 十一일에 계속하야 개회합 예정이엇으나 조선측과 만주측의 의사이 일치되엇으므로 十一일에는 회의를 생략하고 오후부터 사무에관한절충 협의키로 하엿다.

그런데 이계획의 총경비는 一억만원이상이므로 그재원연습에 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도로설계에관한것으로 각각 범개로 연구하야 만주측은 실지답사를 실행한 후 계수(計數)를 산출하는 기초를 정하고 별도계획등을 확정키 상당한 노력을 요할것이므로 피아(彼我)에 파하야는 얼마안협의 국에서 분담하기로될터이므로 이에 관한 제二회회의에는 만주국의 기초안이 작성되는 대로 계최하야 결정키로 되엇다한다.

左傾하는教員思想 徹底한取締討議

重視되는學務課長視學會議

十八日부터三日間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각도학무과장과 도시학관회의를 오는十八일부터 三일간개최키로하고 이에 대한 재반준비를 진행하는중에잇다한다. 이번의 이회의는 특히중요성을 띄운것으로 그길파를 주목하게되엇는데 회의에서토의할 사항은최근에보통학교교원들이적화운동에가담하야 비밀결사등에 가담한은 놀란이오 심한데이르러서는 자기네가 가르치는생도에까지 그러한 사상을 고취시키는일이 잇으므로 교원들의 사상적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철저히취체를 꾀하자는것이라한다.

그리고 그외에는 서당(書堂)과 강습소(講習所)에대하여취체, 지도등파역시 서당선생들의 사상경향을중시하야 대책을 세울것이오따라서 간이학교(簡易學校)시설에관한것과 이에딸으는 교육방침등일반에 철저케하고 보통학교아동의 수업료가 감시된결과 중도퇴학생의 방지와수용아동의 증가등을 토의할터이라한다.

그외에는 파격해가는 학생들의 사상과 특히사립학교 학생교원의 행동감시등을 철저히 하자는것으로 극히중대시된다.

紫雲英種子 六千石購入

【광주】 전남농가에는 뜻밖에 봉이 들린다 한다. 전남도농회에서는 녹비로 쓸 자운영종자를 일본(日本)부산현(富山縣)기부현(岐阜縣) 가타지에서 자운영(紫雲英)종자의 주문이 쇄도하야 방시 그수량이 六천여석이라 대량에 달하엿으므로 방금 그가 입수한 혜택중이라는바 一석 평균二十원으로 계산하여도 十八만원이 춘농으로 전남농가에 수입되리라고 한다.

거짓注文꾼

시내 체부동(體府洞)三四번지 배송옥(白松玉)집원 윤병한(尹炳漢)(二七)은 물품주문을 다니는척하고 허위로 거래처를 때때어놓고 발은물품을 팔어먹은것이 발각되어 동산서에 체포되엇다고 한다.

夫婦携手코 鐵道에自殺

상인천부근에서、원인은미상

十一일 오후十一시경에 경인선 주안(朱安)、상인천(上仁川)간 영등포기점 二十六킬로四百米 제四 그二三열차가 지행중 조선인남녀두명이 돌연 서로 오른편에서 뛰어들어가 자살을 하엿다。조사한결과 그들은 상인천역전 조선운송회사지점 근무원인 손흥운(孫興運)(二七)과 그의처 김복순(金福順)(二〇)으로 판명하엿는데 그원인은 복잡한사정이 잇는모양이라고 한다。

朝運支店의勤務員 五百圓갖고潛伏

김포군양동면 가양리(金浦郡陽東面加陽里) 이진우(李鎭宇)(三一)는 얼마전에 시외 공덕리(孔德里) 박병일(朴炳一)의 정미소에서 벼를 많이 사주겟다고 현금 五백원을 사취하고 최근 공덕리一八一번지 정부 김장산(金長山)의집에 잠복하엿다가 용산서원의손에 체포되엇다고 한다。

開幕된女子卓球 五十名選手入場

十二일오후一시부터 청년회관서

女子體獎의第二回大會

조선여자체육장려회(朝鮮女子體育獎勵會)주최 본사와 중앙기독청년회 공동후원의 제二회조선여자탁구대회는 十二일 오후한시부터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 체육실에서 주최측 회장 김활란(金活蘭)박사의 개회사로 착수 五十九명선수의 입장식이 거행되엇다 작년에 우승컵을 타간 당시이화여자전문의 이선희(李宣熙)양이 금년에는 가정부인으로서 출전하야 우승배를 반환하고 기념배를 받은후 심판으로부터 주의사항발표와 여선희양의 선서문 낭독이 끝남 법향과 같이 잇어 입장식이 끝난후 경기를 곧 시작하니 A、B、C의三코트에서 일제히 제一회전의 평퐁소리가 들리어 처음부터 장내는 떠어난 평퐁성에 여성천지라 이론실내가 자못 긴장 또빽열하엿다。

제一회전의 성적과 막음까지 경과는 다음과 같다。

宣書

我等은 第二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에 參加하야 저의選手一同은 착한 스포ー츠맨쉽을 빛내우고 朝鮮女子卓球界의 向上發展을 爲하야 힘쓸것을 選手一同을代表하야 이에 宣誓하나이다。

一九三四年五月十二日

選手代表 李宣熙

朝鮮女子體育獎勵會 會長 金活蘭 貴下

第一回戰

宋永禮(世富)○—二金順度(金組)
尹九貞(京保)○—二郭晉律(梨專)
史相玉(京保)二—○崔文竣(梨保)
孫玉順(世富)二—○尹良順(女商)
金敬愛(世富)○—二南昭辰(女商)
金金珠(梨保)○—二金文連(眞信)
閔鏡順(梨專)○—二金貞子(家庭)
千英星(京保)○—二張玉蘭(梨專)

ツキサキ鉛筆

遂安騷動事件 不拘束者呼出

廿一日海州서公判

【해주】 수안군 공포면 공립보통학교(遂安郡公補面公立普通學校)기지문제로 농민三백여명이작당하야 면장 배척을 하기 위하야 면사무소를 습격한후 검속자탈환을 목적으로 주재소를 습격하다 십여명사로 二이의사상자를 내이어 세상의 이목을 놀내게한 수안소요(遂安騷擾)사건에 관계자 구속 이인섭(李寅燮)외 七명불구속 이세호(李世鎬)외 九명총十八명에대한 공판은 오는五월二十一일경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형사법정에서 개정하리라함은 이미 보도하얏거니와 이에 일자가 결정되어 해주지방법원에서는 불구속자 十명전부에게 二十一일에 개정하겟다고 호출장을 발송하엿다고 한다。

天氣豫報

高氣壓은 中國中部으로 부터 朝鮮에 蔽하여 北部는 氣壓이 얕다 中部는 맑고 其地는 흐리고 明日後中에는 연개가 잇겟。明日도 天氣는 좋 당。

十一日 晴一時曇

第十回極東올림픽大會 壯嚴裡에幕열어

【마닐라十二日同通特派員發】 기다리던第十回極東選手權大會開會式은 然日下에 마닐라郊外하리손公園리살記念野球場에서 十二日午後二時(朝鮮時間午後三時)부터 壯嚴且意義깊은 感激裡에擧行되엇다。式場內外에는 參加各國國旗가 날리고 數萬의 大觀衆은 定刻前부터 觀覽席을 立錐의 餘地가없게까지 멧엇다。이윽고 定刻이되자 滿場은突然 緊張을띠워 大會本部役員은 本大會會長마누엘게손氏를비롯하야各各入場、本學側에 設備한 式壇에着席하매 뒤이어 闘志에타오르는 各國選手團은 音樂隊를 先頭로 中國、日本、蘭領印度、필립핀等 알파베트順으로 一擧側으로부터 入場이 開始되엇다。

各國選手는 場內를 一週하고 式壇前에 整列하야 中國、日本、蘭印、필립핀의順으로 縱列을짓자 來賓은 滿場에울리고 이어서 필립핀國女學校生徒의 코라스隊는 필립핀國歌를 合唱하야 드디어式이擧行되매 本大會게손氏의 開會辭、필립핀 總督 마피氏의 메세지에다음하야 日、中、蘭印各團長가和、王正廷、興라드등諸氏로부터答辭가잇고다음이어各國選手代表의 宣誓가 行하야 마치매 마피總督은 嚴肅하게大會開會를 宣言하고 때마침祝砲는殷殷하야 南海의蒼空에울리엇다。參加各國을 象徵하는 아름다운기본을 石鋪한 平和의使、傳書鳩의 무리는 紺碧으로 물드리운燦爛한 蒼空에 亂舞하고 大스탠드를 大觀衆으로부터 쏘다저나오는 拍手의소리는 끄칠줄을 모릿다는데 午後二時五十分 이와 같이하야 光榮잇을 極東選手制覇의 幕은 完全히열엿다。

極東올림픽 憲法改正案

【聯合마닐라發】 이번第十回極東올림픽에서 가장注視의 焦點이 되어잇는것은 日本體協의 大會憲法改正案提出時期인데 이것은十七日의 컹그레스(定例總會)의 劈頭에 提出하기로決定하엿다한다

競技終了後 選手歸還日程

【聯合마닐라十一日發】 日本팀은 十九日께앞을마치고 二十一日 平洋丸으로 當地를떠나 香港을經由하야 본아올豫定인바 體協과郵船이 交涉한 結果、二十三日午前七時香港着、二十五日正午香港發 二十八日朝 上海에寄港하야 同地에서一泊、二十九日朝上海를떠나 門司寄港하야 一日正午神戶着으로 決定하엿다。

極東올림픽 十三日의順序

【朝鮮時間은一時間加】

△野球(野球場)日本—中國後三時
△庭球(庭球場) 後三時
△排球(同)日本—中國後三時
△女排球(同)比島—中國 後五時
△蹴球(競技場)日本—蘭印後五時
△籠球(庭球場)日本—比島後八時

中等及倶部籠球리그戰績

第二日까지의것

朝鮮籠球協會主催의 第四回府內中等及倶樂部籠球리그戰(朝鮮日報後援)은 豫定보다 降雨로 하로를 延期하야 十日午後 四時부터 齊洞교에서 行한바 第一第二의 스코어는 다음과같다。

【第一日】

儆新46	(12—9 / 34—12)	21大東
協實18	(8—6 / 10—4)	10普成
延專37	(12—17 / 25—5)	22三角

【第二日】

中央70	(42—2 / 28—11)	13公民
中東52	(28—4 / 24—8)	12徽文
儆新29	(11—12 / 18—16)	28養正

鐵道齒專陸上對抗

十一日午後四時半부터 龍山鐵道陸上競技場에서 鐵道局對齒專對抗戰을 行한바 七十五點對三十五點半으로 鐵道가 大勝하엿다 ●

그中에 好記錄은 鐵道의 米山本一正의 十一秒와 四百米岩崎輔幸의 五十三秒六이라 한다。

專門庭球大會

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로 全朝鮮專門學校庭球大會를 十三日 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한다고한다。

시에론레코-드 六月新譜

番號	種類	曲名	演奏
一七八	流行歌	님우시든벌판에 / 절머한철	南宮仙
一七九	流行歌	술한잔마시고보면 / 눈물의나루	金彰培 / 崔香花
一八〇	넌센스	창살가도 / 太字大會	申不出 申銀鳳 金蓮實
一八一	童話	南方에지는곳	南宮仙
一八二	舞踊	舞	金永娥
一八三	民謠	王日然하다	林방울
一八四	雜歌	執杖歌	李暎山紅

アート萬年筆 高級萬年筆 設備完全한專門店으로 三個年間保險付 金二圓五十錢以上

別府淋藥 說明治療書進呈 別府天然堂 岩屋天然堂 價一圓五十錢

東亞日報橋南洞購讀請求所 橋南洞一四九番地 活命堂藥局主趙鏞元 【光二〇四七】

有利債券推獎 債券의妙趣 貯蓄과抽籤 日本勸業證券京城支店

優美館 世界大洪水 獨立守備隊

대극성광무

姙婦를亂打投水後 番犬시켜咬傷昏倒

被害者는落胎하고生命危篤

李王職山林監守의暴行

【수원】 지난 九일 오후一시경에 수원군 동화병원(東華病院)에 [illegible] 입원하게되어 동원장 박형래(朴炳來)씨의 응급치료로 다행히 생명만은 구하엿다는데 이제 그사실을 들어보면 수원군안룡면송산리(水原郡安龍面松山里) 최규화(崔奎化)의 처 박(朴)씨(二七)가 지난四일 오후一시경에 부근 이왕직산림(李王職山林)에서 시모 이씨(李氏)(五七)와 나무를하며 솔잎을 주시가지고 [illegible] 부근산림감수 이명석(李命石)과 부근사무소주임 곡전지조(谷畠某之助)를 만나게되어 도망하려하엿으나 부근 사성리(四城里)방죽에서 [illegible] 그곳까지쫏아와 무수히 난타하며 물속에빠러들기를 二三차나하고 끝에 [illegible] 다리고왓든 번견(番犬)새끼를 시키어 물게하므로 박씨는 [illegible] 집에 돌아왓으나 박씨는 임신한지가 七개월이나 되엇는데 그충격을 느끼게 되므로 할수없이 전기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는바 태아(胎兒)는 낙태되엇다 하며 박씨는 생명 까지도 위독하다 한다.

事實과틀리오

◇谷畠主任談

「그러한일은 전연히 없습니다. 그여자들을 보고 [illegible] 물에 미리 빠진것은 자기가 다라나다가 빠진것이지 [illegible] 것은 아니며 가죽 사람을 붓기는 하여도 상한일은 전혀없습니다 나는 동민을 위하여 편리를 도모하는데 사실무근한 일을 [illegible] 山의관리 대로 실행하겟습니다」

昨年에咬傷當한사람도 尙今病席에呻吟

谷畠主任과 李監守의 素行

番犬의被害前後五次

이왕직 산림사무소 주임 곡전(谷畠)과 거기 산림감수 이명석은 [illegible] 부근 동민에게 [illegible] 지소와 부근주민 [illegible] 이왕직 산림감수 이명석은 전부터 [illegible] 번견에게 물린자가 이번까지 [illegible] 다섯번이나 되는데 작년에 물린 [illegible] 아즉까지 병석에 누어 신음하고 잇다 한다. [illegible]

平康公普校內에 高等科設置運動

【평강】 평강 공립보통학교(平康公立普通學校)에서는 평강공보교 교사(校舍)一부개수와 五、六학년생 수용할 교실증축에 대한 경비조달 문제로 지난 五월十일 오후一시부터 동교 사무실에서 학부형회를 개최하고 전기 개수증경비거출 문제를 토의한 동시에 종래 六학년을 졸업한 아동을 위하여 [illegible]

遠來의強軍과相對 龍虎相搏의快技

◇明新、松高、崇專은善戰惜敗

全朝鮮蹴球의第二日

【평양】 관서체육회 주최 제二회 전조선 축구대회 제二일은 역시 十一일오전九시부터 평양공설구장에 개최되엇다. 이날은 아침부터 밀려드는 관중이 무려수만을 헤이는가운데 용호상박의 패기는 속출하야 환성이 평양천지를 진동하엿다. 특히 원래에 숭고(崇高)대 숭실(崇實)의 싸움과 재령(載寧) 명신(明新)대 오산(五山)전, 그리고 전평양선수의 월성군(月星軍)대 숭전(崇專)의 싸움은 처음부터 기장내에 백열전이 지속되어 관중을 열광케하엿다. 전적은 별항과 같거니와 명신, 숭고, 숭전의 선전석패는 만장의 동정을 끌엇다.

青年團二回戰

崇專四一一會洞

五月十一日午前九時十二分、金光信(主)崔勝鵬、吳用八(線)崔乾錫、金泰獎(門)五氏審判、崇專先蹴으로開始(前五十分間)

【經過】 崇專은相手가 會洞軍처음부터 [illegible] 攻勢를 取하며 [illegible] 十六分에 첫「골」을 엇고 다시十九分에 一點을 빼앗기자 [illegible] 後半에 [illegible] 崇專은 [illegible] 結局四一一로 崇專決勝

青年團準決勝

陸上一一〇太陽

午後三時廿二分、朴永哲氏主審 太陽先蹴으로開始(前五十分間)

[illegible] 用、技術에 잇서 一日의 長이 잇는 太陽軍 陸上軍의 [illegible] 組織된 陸上軍의 蹴足에 [illegible] 하야 苦戰에 해매이면서 少强을 保持하는데 25分에 이르러 드디어 門前混戰중에 陸上CH强蹴에 致命의 一點을 빼앗기고 後半에 들어 [illegible] 技術을 發揮하지 못하고 그대로 一一〇으로 惜敗하다

月星一一〇崇專

五時五九分、鄭元壽(主)金泰獎、金光信(線)安基璣、金光福(門)五氏審判、崇專先蹴으로 開始(前五十分間)

【經過】 崇專 「킥오프」로 有利하야 [illegible] 前에 肉迫하엿으나 全平壤選手로 組織된 月星의 守防이 [illegible] 崇專風勢不利함에도 [illegible] 쉬지 안코 [illegible] 崇專의 肉迫이 [illegible] 前半을 넘기고 後半에 [illegible] 崇專의 肉迫이 [illegible] 敵을 [illegible] 超激戰으로 壯快無雙 [illegible]

實業團二回戰

正昌A二一〇法曹B

午前十時廿分 崔鵬顯氏主審 A의 先蹴으로開始 (前廿五分間)

【經過】 平凡한 兄弟戰 前半A軍[illegible] A軍二回戰에 [illegible] 兩軍의 戰鬪이 [illegible]

事會二一一月星

午前十一時三分、鄭元壽(主)安基璣、金正塡(線)吳用八、李貞烈(門)五氏審判、事會先蹴으로開始(前五十分間)

【經過】 風勢有利한 月星軍의 猛襲 敵을크게肉迫하야 [illegible] 「골킥」만내이고 無爲되다 十分에 RI의活躍 奏效하야 一點을先取하고 自然戰을持續 後半에 [illegible]

木工三一〇大山

零時六分 申在錫氏主審 木工先蹴으로 開始 (前五十分間)

【經過】 木工風勢不利함에 不拘하고 善戰하야 前半五分에 一點을 加하야 [illegible] 後半에 다시一點을 加하야 三一〇으로 快勝하다

同友一一〇安州

午後六時五十七分 [illegible] 氏主審、安州先蹴으로 開始(前五十分)

【經過】 劈頭同友軍 風勢有利하야 敵陣을 [illegible] 二十餘分에 [illegible] 後半에 들자 同友門前에서 [illegible] 때때로 逆襲을 [illegible] 二十三分에 同友軍 一大危機에서 脫出하엿스나 疾風같이 몰아들어 RW의「파스」를 CF强蹴하야 反히 一點을先取하니 이로써 勝因을 잡고 [illegible] 遠來의 安州軍 善戰惜敗하다

五山一一〇明新

四時三三分、金光信(主)金正塡、金成璣(線)朴惟敦、鄭元壽(門)五氏審判、五山先蹴으로開始

【經過】 風勢 不利함에 不拘하고 五山軍 善戰하야 [illegible] 五山軍 絕大危機에서 脫出하면서 [illegible] 明新軍 [illegible] 一點을 先取 [illegible] 前半을 마치 [illegible] 後半에 드러 明新軍의 肉迫 [illegible] 하기 數合 [illegible] 攻勢를 밧으며 [illegible] 明新은 [illegible] 昨日의 幸運의 勝者 今日 惜敗하다.

I强蹴하야 다시一點을加하야 氣勢를 올리는反面 松高軍挽回에必死의 努力을 다하엿으나 功效이 없이 苦戰으로 끝마치다

中學團準決勝

崇實三一〇松高

午後三時三十分、金光福(主)朴惟敦、崔鵬顯(線)鄭元壽、金[illegible](門)五氏審判、松高先蹴으로開始(前五十分間)

【經過】 風勢有利한 崇實의 猛襲一하야 敵을 크게 壓迫하야 三分과 四分에 絕大好機를 노치다 五分에 CH의 長蹴門守를 [illegible] 하것을 RI 巧妙히 合하야 一點을先取 이로부터 龍虎相搏하는 激戰은 繼續 後半에 들어 松高陣 猛攻에 아아가 [illegible]

小學團準決勝

崇德四一〇敬信

三時廿七分、金光福氏主審 崇德先蹴으로 開始(前四〇分間)

【經過】 小學에 敬信軍 風勢에 힘입어 攻勢를 保持하다가 後半 崇德의 强襲을 밧지못하야 十一、十五、十七、十八分에 連하야 「골」을 빼앗기니 善戰도 功없이 敗하다

全朝鮮蹴球第二日

(上)月星對崇專의 激戰 (上左) 三洋門前의 混戰 (下)崇德小學 蹴球 (右上)崇專出戰 (下)女子應援團入場

카페女給으로 村處女誘引

함흥법원 공판에 붙어든것

檢事는一年役求刑

【고원】 고원군 [illegible] 가해 [illegible] 정어리 [illegible] 하야 여종업원이 되엇는데 고원군 [illegible] 함흥지방법원 [illegible] 里) 김광인(金光麟)(二七)에 대한 [illegible] 는 十四일이라 한다.

痴情關係로 愚男女放火

【여자가 그리워서、월회장면 말각하으로】

檢事는二年과三年求刑

【신의주】 [illegible] 새파란 [illegible] 동군 위연면 [illegible] 부근 [illegible] 신의주 지방법원 [illegible] 하는 [illegible] 에 [illegible] 차장 [illegible] 간리에 [illegible] 한 [illegible] 여자는 [illegible] 양파사 배식, 이(李)김시 [illegible] 레 게진그리운 [illegible] 情의 사나이와 [illegible] 관함이 방해 [illegible] 공판이 열리엇다.

◇…… 보지 용천군 중면 가성동 [illegible] 공사(龍田工事)의 현장에 사는 장상하(張相河)(二一)와 동군 외 상면 [illegible] 조씨 [illegible] 하야 [illegible] 동군 [illegible] 에 [illegible] 여관 [illegible] 강씨를 [illegible] 한때에 강씨는 하루밤사이에 [illegible] 방에서 [illegible] 하고 이밤 떠나가려 하엿으나 [illegible] 이 [illegible] 「호세」가 「가보면」없어서 [illegible] 에 [illegible] 여다.

◇…… 군산군 [illegible] 山郡東新面佐洞) 전이성(全利性)(二三)이라는 여자는 소화六년이래 [illegible]

病魔의貧民爲하야 無料診療券配付

四萬八千枚를 兩期로 나누어

全南道에서各郡에割當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병마(病魔)에 시달리고 잇는 빈민들을 구제하기위하야 九년도에 [illegible] 요권 一만二천八백매와 도지요권(道診療券)三만五천四백매를 [illegible]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엿다는데 우선 소기에는 그 [illegible] 권六천四백매와 도지요권 一만七천七백매로 [illegible] 다음과같이 도내각부군도에 배부하다고한다. 그리하야 이지요권을 받은사람은 도내의 약방(藥房) 병원 등지에서 二十전어치의 약을 [illegible] 강이 상주엇다고 한다.

▲木浦府四七五枚▲光州郡一、四四五枚▲潭陽郡九九五枚▲谷城郡八六〇枚▲求禮郡六二五枚▲光陽郡七〇〇枚▲麗水郡一、一二五枚▲順天郡一、一九五枚▲高興郡一、二六五枚▲寶城郡一、一四五枚▲和順郡一、〇七〇枚▲長興郡八六五枚▲康津郡七八〇枚▲海南郡一、二四五枚▲靈岩郡九一五枚▲務安郡一、七六五枚▲咸平郡八二五枚▲羅州郡一、七〇〇枚▲長城郡九九五枚▲靈光郡九六〇枚▲珍島郡六四〇▲濟州島一、七六〇枚▲計二四、一〇〇枚

이에 대하야 [illegible] 五일 오전一시경 [illegible] 어업에 쌍인 송시에 [illegible] 검사는 이에 대하야 징역三년을 구형하엿다.

그러고 양인의 판결언도 기일은 오는 十六일이다.

姦通媒介한 老婆를打殺

가해자 三명은 도주하여 버려

義州署犯人嚴査中

【신의주】 삭주군 남면 [illegible] (朔州郡南西面上洞) 갱부 김[illegible]화(金[illegible]化)(二七) 김[illegible]하(金[illegible]和)(二七) 三명은 지난 五일밤十一시경 술을 잡먹고 오후 [illegible] 최상[illegible](崔上[illegible])방에 이르러 최의 처 [illegible]세녀(任世女)(四[illegible])에게 대하야 어찌하여서 [illegible] 하여금 [illegible] 남자와 정교를 하도록 중매하엿느냐고 [illegible] 피해자는 이 [illegible] 도망하엿는데 [illegible] 十一시경 드디어 [illegible] 이 [illegible] 집하고 삭주경찰서에서는 전기三명의 가해자를 엄사중이나 아직 체포하기에 이르지못하엿으며 시체는 十一일 해부하기로 되엇다.

自動車에重傷

【장전】 지난八일 오전一시 조선운송(朝鮮運送)사 사무사가 하월(夏月)[illegible] 을 [illegible] 가 시내에 [illegible] 김용[illegible](金容[illegible])이운전하는 [illegible] 상시켯는데 다행이 [illegible] 사하고 이를 [illegible] 가슴에부상을 어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群山府民의貧富

조선인 그것은 廿五정보에불과

朝鮮人經濟生活의裡面

【군산】 군산부내의 토지(土地)소유상황으로 보건대 조선사람의 생활이 [illegible] 비참한 생활이라는데 이것을 수자로 표시하면 이보면은 一二二二정 [illegible] 보에 지가 [illegible] 세 五백三十一원 [illegible] 본인 그것에 비하야 二할에 불과한 현상이어서 이제는 조선사람은 [illegible] 계 [illegible] 실할 [illegible] 조선인은 겨우 二二정 [illegible] 보에 지가(地價)五十八만 五천二백六十三원 납세(納稅)九천九백四十九원 八十四전이나 되나 [illegible]

棍棒携帶한 三人强盜團

현금六十원을 강탈 도주해

義州署犯人嚴探中

【신의주】 九일 오전 一시반경 의주군 옥상면 삼정동(義州郡玉尙面[illegible])농업 김세형(金世亨)(三[illegible])방에는 三인조의 강도가 침입하야 곤봉으로 가인을 구타한후 주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六十一원四十전과 도장기 [illegible] 지도망하여 버렷다.

이 급보를 접한 의주경찰서에서는 비상선을 느리고 범인을 엄탐중이나 아즉 체포하기에 이르지 못하엿다한다.

泰川어린이날

【태천】 태천군 소년연합회(泰川郡少年聯合會)에서는 종래에는 음력으로 어린이날을 거행하여 오던바 금년은 양력으로 서면덕흥 청계동(西面德興 淸溪洞)[illegible] 운동장으로 기행렬(旗行列) 부터 운동경기(運動競技) 기행렬 [illegible] 은 주최측 [illegible] 一대에 어린이날의 기세를 올리엇다고 한다.

서웟엇다. 상냥하고 야릇한 냄새가 비위를 뒤집엇다.

얼마 먹는체 하다가, 상철은 젓가락을 던젓다.

「왜 비위에 안맞지요 일어요.」

……젓갈 몇쯤 시켜 줄가」

명화는 소리구니를 뜨어머다가 구경스럽게 물엇다.

「뭐, 괜찮아 술이나 한두잔하면 되……」

진

「밥이 못먹으니 시장도 하실터인데……」

「아니, 찻간에서 제법을 드는 터 먹엇어」

「웬요, 그 까짓 변도가 무슨 가 돼러요」

「그래도 해외 잇을때 보면은 감쌈이나 먹은 셈이라 허―」

「그러면 거기 계실때엔 노장을 으시겟지요」

「그야 굶다가 먹다가햇지만…」

「아이」하고, 명화는 복이 메여 밥 뒤울을 놋지못 하엿다.

른듯하던 몸이 이렇게 나중엔이 말르고 중병까지 드신것이 오전히 고생서러 까닭이어니 하매 새삼스럽게 안타까웟다. 해외에 나가면 웬만한 고생이야 짐작못한 바도 아니지만, 끼니를 걸른다는 정은 상상조차 못하엿던것이엇다

「그래 조선도 제때에 못잡수섯 단 말수에요」

하고, 명화는 술을 부엇다.

「조선이 제때라니, 그러면두 가 해외 풍상이 끄떠 헐게요」

상철은 [illegible] 잔을 들이 마셧다.

을랏다. 그 한때 하던 얼굴은 피 를 발과 [illegible]

「술도 그렇게 [illegible]」

「몸데 잘 [illegible] 못하겟지만 방때문에 못해를 해어서……」

「아무, 그런 뭐 술을 [illegible]」

오.

「인제는 먹어도 변괴야……」

「명화 [illegible] 감지도 마음 데……」

「당이야 안 나겟지만 입에 [illegible] 지어 봐」

「또 너를 오시더니」

「그러면 [illegible] 좀 아서 [illegible] 마지 안 이러게 그리함 명화를 [illegible]」

해나, 허허」

「그럼스록 [illegible] 쫌 좀 아 서여진」

하고, 명화는 상철이가 또 [illegible] 는 술잔을 빼으라 하엿다.

「잘 못 한 한잔을 어때구」

「원들이 타치시던」

「다치면 대수요. 얼마 남지 [illegible] 은……」

하다가, 상철은 [illegible] 다.

「얼마 남지 않지 [illegible]」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아닌 간」

하고, 명화 그 말을 [illegible] 다. 얼굴은 [illegible] 지지고, 술까지 [illegible] 빠졋다.

「왜 인생이 [illegible]」

명화는 [illegible]

「그러 고생을하구, 예기가 계서요 글세 얼른 나오실게진 [illegible]」

「허―」

상철은 어이없다는듯이웃엇다.

「끼니를 에우니 어떠게 생활이 언 나요」

「그까짓 밥 좀 굶는거야 상관 이 없지만, 마음의 고통이 됫배 낫 [illegible] 하니까……」

하고, 후 한숨을 내어쉬고, 눈을 [illegible] 게 뜨며, 정정한 지난날의 고생을 눈앞에 그려보는듯이 두 [illegible] 안 먹은 술이 [illegible] 서

[illegible] 답하고 간드러진 [illegible] 상이 [illegible] 깨워잇다.

경지게 구슨 소라, 신 머리칼같은 무서에 연표 생전 회장이 어느새 [illegible] 된 오어 나랏다. 눈앞이 잔 대륙지 으로 [illegible] 고 집을 [illegible] 의 눈에 전기하고도 서로 갓다우 갈고 가려 [illegible] 여러해포를 못먹어보던 음식이 라, 눈에도 서툴 거니와, 입에도

고국의 밤 (六)

赤道 (119)

玄民作　李青田畫

漁港鎭南浦에 漁組를創立

어업의 향상발전을 도모코

期待와嘱望이많어

【진남포】 진남포(鎭南浦)는 흔히 어항(漁港)이라고 한다. 동시에 또한 어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인측 어업자로서 피차의 이익을 도모하는 하등의 기관이 없엇다 따라 조선지방당국에서 이경을 一대유감으로 생각하든 조선인측 어업자(漁業者)들은 이지음 분연 궐기하야 어업의 향상발전과 동업자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한 어업공제조합(漁業工濟組合)을 조직하엿다는 기쁜소식이잇다.

지난 十일 오후八시반 동지의 광기리(廣梁里) 만흥상회(萬興商會)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九十여명의 어업자가 회집하야 [illegible]

新義州와義州間에 國境街道를新裝

街道兩側에도植樹

폭이를 廿二간도로로 고치고

【신의주】 조선의 사명(使命) 신의주와 의주(義州) 국경의 연결된 의주가도(義州街道)는 현재 [illegible] 폭이 一九간이 좁은 도로인데 금번 신의주 시가정리와같이 대 [illegible] 폭이 二十二간의 대도로로 만들고이 거리에 작우에정비 二천 九백원을 들여 벚나무(櫻)를 심어 볼길의 꽃터널(隧道)를 만들고저평안북도 당국에서는 이미 금년가을 까지에는 도로를 완성시키자정이라고 한다.

이 계획이 실현되는 날에는 신의주와 의주는 안전히 연결되어 새로운 국경의 호화로운 대도시가 나타날것이라 한다.

永興不良者團束

【영흥】 지난 八일부터 영흥서에서는 시내 각처 요리점 음식점 여관 [illegible] 엄중한 조사를 [illegible] 검거를 [illegible] 하여 [illegible] 지하에 [illegible] 배로 [illegible] 종래 [illegible] 받어오든바 이번 금번 부양사취체 에 걸려 그와같이 검거들당하게 된 것이라 한다.

경찰은 다시계속하야 금후도 이러한 무리의 취체를 엄중하게 하리이라 한다.

남이는떠하리고 青春男女逃走

清安警察에搜索願

【청안】 충북 괴산군 청안면 [illegible](槐山郡 青安面)에서 [illegible] 부신 청안연전(淸安驛前)에서 [illegible] 이종호(李宗鎬)(二[illegible]) 는 [illegible]

이로 [illegible] 유부녀 [illegible] 지난 [illegible] 두사람은 두손을잡고 [illegible] 하엿다는데 [illegible] 청안경찰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한다. 一同 [illegible] 이로 [illegible]

簡易學校認可

【해주】 황해도 내각군에 간이보통학교를 설치코저 [illegible] 황해도 [illegible] 학교 [illegible] 에 대하여 [illegible] 야고등과 설치가 잇는 관서방 학교에 이하시키라면 여러가지로불편하므로 이기회에 우리평강공보 교내에도 고등과를 설치하도록一방은 당국에 교섭하며 一방으로는 설치에 요하는 경비할릭 지가에게 기부를 요구하여서 만일 이기부액이 예정액에 달치못할때에는 다시회를 열고 집대 상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게하자고 결의 하엿다 한다.

해도 황해도 내각군에 간이보통학교를 매군二교로 총二十四교를 설치할 계획중이라는데 지난五월十일까지 도당국에 지정서를제출한곳이 해주 一군을 제한十六군에 三十二교라는데 그중 은률군(殷栗郡)에서 서부공보교(西部公普)부설인 석포교(石浦)가인가되고 은남공보교(殷南公普校)부설인청계(淸溪)가 인가되엇다는데 대 [illegible] 남九일부로 인가되엇는데 대각경비는 三천五백여원 가량이라고한다.

永興記者團發起

【영흥】 영흥(永興)에는 종래 기자단(記者團)이 없어서 각당무자간에는 이것을 크게유감으로생각하여오든바 금번 해운제가 구체되어 관계자들은 각반준비에 분망중이든바 그것도 작작진행되어 준비가 정돈되엇으므로 오는 十九일 시내 태양관(太陽館)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데 당지관계자는 다수 참석하기를 바라다고한다.

「신」은 당지 소선 유리점 영남관(永樂館)기생 노산호(盧山玉)[illegible] 과 강이 지난 七일 새벽 一시경 평안에 [illegible] 어디론지 도망하엿다는데 기생에 포주인 장봉옥(張鳳玉)은 경찰에 수색원을 제출하야 경찰 당국에서는 사방으로 수배중이라는바 전기노산옥은 작년四월에 二백원에 十년기한으로 팔려왓다는바 관계가 잇엇든 [illegible] 하다고 한다.

정판작성과 임원선거를 행한후 밥이 김도학 금후의 사업진행방침을 토의결정하고 자정이 지나서야 폐회하엿다는데 동지 어항은 일반 어업자를 위한 어향으로 어시장(魚市場)경영같은것은 一개의 영리회사에 맥겨잇어 아니라 일반 어업자로 조직된 공동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경영함이 이때에 라는 여론이 자못 비등하든 시기전기와같은 단체의 출현은 사기적절하며 또한 상당한 이업성잇을 것이라고 一반은 기대한다고 한다

◇鎭南浦漁業共濟組合任員▲組合長[illegible]▲副組合長金[illegible]▲會計員[illegible]▲監事[illegible]▲評議員[illegible]

高原强盜被逮

【고원】 지난六일 우편배달부를 습격하야 배달부를 [illegible] 도는 지난八일 오후 [illegible] 원에게 체포되엇다는 보고가 본서에 도착하엿는데 범인의 주소씨명은 아직 [illegible] 이없다한다.

仁興公普金訓導 勤續十週年記念

【영흥】 인흥(仁興)공립보통학교 김[illegible](金[illegible])씨는 동교훈도로 근무하지 금년이 만十년으로 그동안 동교를 위하야 적지않은 공로가 잇엇다하야 동교학부형회(同校學父兄會)에서는 이미부터 전기 김훈도의 기념식거행을 준비하야 오던바 지난 四월二十九일동교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기념품까지 증정하엿다 한다.

江界어린이날

대성황을일워

【강계】 강계(江界)의 어린이날은 이날을기념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되는 성황리에마치엇다 한다. 당일 오전十一시에는 천도교당앞에서 기념식이잇엇고 뒤이어 대회순 (유)으로 참가한 가장행렬 [illegible] 원기있게 행진하엿으며 밤에 이 시가를 행진하엿으며 밤에 개최된 여흥은 二천여군중을 맞이하야 천도교당앞 대광장에서 개최되 었다한다.

金剛山探勝團

麗水支局募集

【여수】 본보 여수지국 (麗水支局)및 남조선 철도주식회사 (南朝鮮鐵道株式會社)주최로 금강산탐승단을 모집하는바 탐승지 명 일행 어비용과 참가신청예절 한규정은 다음과같다하며 다수참가하기를 바라는바이다.

一、日時 六月一日出發 六月十日歸着

一、旅費 三十三圓 (車費、船費、食費、宿泊料 其他)

一、申込 五月二十五日까지 申請金을 添付하야 本社麗水支局

又는 南朝鮮鐵道本社으로

一、探勝地 內金剛 外金剛 海金剛 三防藥水 京城市街 元山市街

北鐵管理局에서 自動車經營

【다롄】 북철 관리국 (北鐵管理局)에서 합자회사 자동차 영업을 로 예수 계획성을 당업계의 불안 파 소문이 자자하고 잇는데 一방적으로 시비가 많은 이번에 통과리국에서는 극비밀히 기분 조사는 완료되엇으며 이제 그보다 조사만 완료되면 곧 각방으로부터 [illegible] 고한다。(鮮展은 十週年을 [illegible] 에 [illegible] 시작한 모양이라한다)

受賂한警部補

예심으로회부

【안동현】 [illegible] 경부보 [illegible] 가 주범이 되어 부속 순사와 같이 맨보 밀수자에게 뇌물(賂物)을 받아먹은 독직사건(瀆職事件)은 안동영사관에서 취조를 받는중 유죄로 판명되어 大 [illegible] 로 영사관(領事館)예심에 회부 되어 [illegible] 으로 호송되엇다 한다.

ClibPDF - www.fastio.com

中繼貿易旺盛으로 朝鮮貿易激增

出超轉向이 注目處

朝鮮의 對日本內地及對外國貿易은 昨年來急增하야 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對滿貿易의 激增에 依한 中繼貿易의 增加가 主要原因의 하나로 되어 있다 四月中의 對日本內地貿易은 左와 如하다

	今年	比前年
移出		
移入		
計		

對外爲替市況

（五月十二日）

▲東京宛　對米賣　對英賣
▲大阪宛　對米賣　對英賣

朝鮮産金界에 臺灣財閥進出

進展하는 朝鮮産金界에 異彩

五月上旬中의 鐵道荷物動態

五月上旬中의 鐵道局線貨物發送數量은 合計十六萬八千五百十三噸으로 前年同旬에 比하야 九千五百七十五噸이 減少이다

米移出數量 從來記錄突破

九百萬石을 超過（五月上旬까지）

今年度朝鮮米移出量은 從來의 記錄을 突破하야 八百五十萬石을 …… 五月上旬까지의 移出累計는 四百九十三萬石에 對하야 ……

（一）米穀移出量（玄米換算單位石）
（二）米穀移入量（單位石）
（三）粟移入量（單位石）

米大統領의 讓步로 銀問題妥協이 進展

强制와 自由裁量의 混合案受諾？

白堊館當局聲明發表

朝鮮製絲業令 不遠法制局廻附

奉天工場地帶 借受申請殺到

春蠶掃立豫定 比前年五分八厘減

滿鐵油房淸津進出

米日爲替保勢

滿洲國曆本用紙로 大鋸紙製造努力

朝鮮窒素會社에 專用鐵道敷設免許

土曜株評 休養期再到 場面果然明朗？

四月中金融概況（朝銀調査）

米　粟　大豆　小麥　綿絲布　砂糖　金融

今日의 市況（五月十二日）

株式（單位十錢）	前場	前後場比較
新東		
期米（單位圓）東新		

正米（三等單位）	標準時勢	前日比較
京城		
仁川		

商品（單位十錢）	前場	前後場比較
綿絲大先		
人絹		
地金		

時勢와 市況

株式 前場保合 下支 膠着

後場 土曜休會

小康裡保勢 今後押目은 買進

物色買再燃？ 雜株多少活況

實物賣買價前場

東京國債市況

人氣依然頑强

한참往來保合

後場低迷

期米 强納 相持

後場頑强

大阪短期前場步調

朝取短期前場步調

財 海 餘 波

米豆餘聞

各地正米商況

京城頭重　仁川低合　南浦伸悩　釜山不變　大邱保合　群山低落　木浦保勢

海外經濟·金融及商品市況

堂島前場情報

各限後合

株式 朝取短期取引

期米 朝取取組高

日本內各地期米

仁川·京城 康益夏商店
京城株式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 黃金町

新取引員 金仁梧 謹進呈 電話 530·773·738

期米 株式 福

五月十二日發賣 新刊

圖成社